

「영동군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사업」

심사 총평

전반적으로 우열을 명확히 가리기 힘들 정도의 훌륭하고 독창적 제안이 많아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고민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연구원의 근무환경 개선, 연구 동선의 효율성, 민원인의 이용 편리성 및 복지 제공 등의 연구공간의 기본적 해결과 더불어 어려운 부지 형상을 극복하고 적절히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독창적 건축공간 및 외부공간 제안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안들이 순위에 들지 못하는 불운을 맞게 되었으나 결코 안의 수준 문제라기보다는 경미한 차이에 의한 순위 결정이었음을 참가자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2023. 12. 07.

심사위원장 장기욱

<당선작> 건축사사무소 아이건축(이태영) + 경희대학교(천장환)



장기욱

전체적 공간 구성이 명쾌하고 주출구와 사무실에 이르는 전이 영역의 배치가 남북의 통경을 연결하는 위치로 설정한 현명함이 돋보이는 안임. 일반적 연구실의 건축적 형식을 탈피하여 정제된 조형언어와 재료의 구사가 돋보이고 공중을 배려한 옥상 정원의 효율적 배치로 주변 마을과 인접 농업 기술센터를 다 같이 고려한 점이 인상적임.

박호현

대지 북쪽의 어린이집과 연계된 공공공간의 계획이 우수하고 필요한 기능을 명쾌하게 구분한 계획안임. 다만, 예정 공사비 대비 외부 계단과 옥상 공간 조성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실시설계 시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장건

후면의 주변 환경과 조우하는 방법이 편안히 받아들여지며, 공공건축으로서 크기와 규모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면의 전면성을 잘 살리면서 근접 시설과 조우하는 옥상공간의 쓰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채가을

여타 다른 계획안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분석실 공간 구성을 넘어서서 중앙의 서비스 공간을 통하여 좌우, 양쪽으로 랩실을 구분하여 배치한 것이 매우 유니크함.
건물의 배치를 남측으로 이동 배치하여 북측의 마을에서의 경관을 고려하고 공공성이 반영된 주출입구 해석이 매우 좋음.
유치원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쉬운 어프로치를 제공하고 다양한 휴게공간 제공, 직원들의 업무 공간 또한 남향 배치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한 것이 좋음.
입면에서 수평적으로 분리하여 나지막한 매스로 처리한 것 또한 훌륭함.

이양재

북측면 진출입에 대한 우려와 하역 동선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공사비는 초기부터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위> 공전건축사사무소(주) (장병수)



장기욱

남쪽 과수원에 면하여 대기 홀을 배치하고 동쪽의 주진입과 서쪽의 농업기술센터를 좌우로 효율적으로 연결한 점과 중정을 중심으로 사무실, 좌우의 랩 공간의 외부환경을 배려하는 점, 그리고 명쾌한 연구공간 조닝이 돋보이는 안임.

박호현

단순하고 명확한 평면구성이 우수함.
단정한 매스의 사용과 과하지 않은 재료의 사용이 적절함.

이장건

대지의 형상으로 인한 평면에서 모자란 점을 중정을 넣어 잘 풀었다고 보인다. 전면성과 후면성, 동선이 명쾌하게 해석되어 보인다.

채가을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로비, 전시/대기 공간의 매스를 남측에 별도로 두어 전체 프로그램을 엮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유니크함.
하역 동선이 창고, 가스실, 부대시설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해결한 것이 좋음. 중앙에 중정을 두어 별과 환기가 필요한 사무실, 랩, 휴게실 등을 배치 계획한 것 또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짐.

이양재

남측면의 코리도를 통해 진출입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를 이끌어 낸 점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으로 평가됨.

<3위> (주)퍼спек티브스건축사사무소 (김원방)



장기욱 각종 분석실을 방사형으로 배치하여 연구 동선의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돋보이고 남측의 좌우 연결통로로 원활한 외부 보행동선을 배려하는 점이 우수함.

박호현 공간을 집중적으로 집약해서 효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태양광 패널을 디자인과 일치하여 입면 디자인이 뛰어난.

이장건 심플한 매스에 2층 코리도는 작은 대지에 꼭 채워 앉혀야 하는 건물이 풀지 못하는 설비적 측면을 잘 해결한 중요한 대안으로 보인다.

채가을 매우 컴팩트한 계획안으로 내부에서 위요된 랩 공간의 채광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창을 두어 입체적인 매스로의 연결로 이어짐.
가스 보관실을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보행자 동선과 분리 배치하여 해결한 것이 좋음.
다만, 내무에서의 공간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 중간에 자연채광이 통할 수 있는 틈을 두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음.

이양재 데이아웃이 명확하고 남측면을 따라 농업기술센터와의 통로를 구현한 점이 매력적임. 다만 가운데 위치한 LAB실들이 높은 측창으로만 채광/환기가 이루어진 점은 아쉬움.

<4위> 시와건축사사무소 (배지영)



장기욱

중정의 적절한 배치로 가장 환경이 좋은 랩 공간 구성을 제안한 점이 돋보이나 창고 등의 서비스 동선을 위한 도로 계획이 아쉬움.

박호현

매스를 분절해서 중앙에 큰 중정을 계획해서 채광과 환기 등 전반적인 거주 환경일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분절된 공간으로 인해 유연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됨.

이장건

아담한 규모로 분절된 공간구성이 매력적이다. 외부로 향할 수밖에 없는 작은 셀 공간과 큰 내부 공간에 중정의 연결을 통해 해결한 공간구성은 건물이 대지에 완벽히 자리 잡은 듯 보인다.

채가을

내부 투명한 중정 공간으로 인해 랩실과 이동 동선에서의 만나는 시퀀스 등이 좋은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각각의 다른 기능 등을 엮어줄 수 있음.

이양재

중정을 통해 공간 분리를 구현하였으나 하역 동선이 곳곳에 이르지 못하고 수직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목구조 지붕 방식이 아쉬움.

<5위> 건축사사무소 공유 (김성우)



장기욱

주변 마을과 인접한 상황이나 마을 건물과 스케일이 유사하게 매스를 분절하고 사이 공간을 통한 외부와의 교감을 시도한 점이 우수해 보임.

박호현

공간을 기능적으로 그룹핑해서 그 사이사이에 외부 공간을 접하도록 한 계획이 우수함. 실내로 들어오는 채광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프로그램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됨.

이장건

프로젝트의 건설 비용이 좀 더 있었으면 충분히 최고의 안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아쉬움이 남는다.

채가을

각각의 분절된 매스들의 조화가 주변 지역의 컨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좋은 느낌이고, 매스의 조합이 평면계획과 공간에서 연계되어 해결됨이 좋음.
다만 상시 머물며 업무를 해야 하는 사무실 공간의 배치를 조금 더 고려했다면 좋았을 것 같음.

이양재

셀들이 많아 가변적인 공간 운용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며 입면적의 증가로 공사비 우려가 있음.
